

#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영화 축제

##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오늘 개막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이하 IIFF)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축제 일정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배우 김동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광수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임재원 국립국악원장을 비롯해 전라북도의 주요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보유자들이 참석해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영상축제에서 특별전을 선보이는 한국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은 이날 개막식 참석과 더불어 다음 날 '축제'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석해 본 축제의 의미를 더해준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팝밴드 뮤즈그레인이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자원을 통해 새롭게 작곡한 음악을 특별 공연으로 선보인다.

아울러 제작지원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김군'의 강상우 감독이 본 공연을 위한 제작한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자원은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 기간 중 뮤즈그레인은 이별을 주제로 우리나라 전통민요 '금대래곡', 춘향가 중 '동풍이 눈을 녹여 가지 가지 꽃이 피네', '몽금포 타령' 3편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또, 강상우 감독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삼품이춤 이수자인 채향순 교수를 주제로 한 단편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한편, 김태용 감독이 연출한 개막작 필름콘서트 '꼭두 이야기'는 할머니의 꽃신을 찾으러 떠난 어린 남매가 저승세계로 빠지게 되면서 4명의 꼭두를 만나 함께 꽃신을 찾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김태용 감독과 방준석 음악감독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상영과 함께 20명의 국립국악원 악단이 라이브 연주로 영화음악을 들려주는 필름콘서트 버전으로 소개된다.

이번 축제는 오늘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에서 개최되며, 개·폐막식을 포함한 모든 영화 관람과 행사 참여는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운영



사무국(☎ 063-220-8253 / iiff2019@naver.com)이나, 홈페이지(iiff.in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 깊어가는 가을 밤과 함께 흥겨운 우리 국악을 마음껏

### 내일 고창서 판소리 유파대제전 열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유파가 다른 명창들의 다양한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2019년 판소리 유파대제전'을 연다.

첫 무대는 동리문화예술단 디딤밭의 '천안도'와 '남원산성 부채이춤'으로 연다. 이어 소리뿔가 동학농민혁명사를 사실적이고 웅장하게 판소리 사설을 엮어 새롭게 창작한 판소리 '동학농민혁명가'를 선보인다.

1부 청출여람 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에선 고창출신 정수인 명창(서울대대학원 음악박사)이 '흥타령의 꿈이로다 꿈이로다', '판소리 단가 사철가', '판소리 동초제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등의 공연을 펼친다. 부채로 풀어보는 풍류한량무(춤 이종규)와 서용석류 대금산

조(대금 김용화, 장단 황성현)도 선보인다.

2부 빙수위지 현어수(氷水爲之 寒於水)는 판소리 동초제 '심청가' 중 '곽씨부인 유언하는 대목(명창 최영인)', 판소리 미산제 '수궁가' 중 일개한퇴 대목(명창 김정태), 판소리 만정제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대목(명창 김정숙) 등을 유파가 다른 명창들이 유파별 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 전통음악의 흥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동리문화예술단이 소리로 풀어내는 고창풍류 '동백타령'으로 판소리 유파대제전의 무대를 마무리 한다.

고창군에서 깊어가는 가을 밤과 함께 흥겨운 우리 국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판소리 유파대제전의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익산 왕도역사관, '639년의 진실, 백제 왕실사찰 제석사지' 특별전

익산시 왕도역사관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639년의 진실, 백제 왕실사찰 제석사지'라는 주제로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화재 당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제석사 폐기유적' 출토 유물을 통해 백제 불교미술과 사찰건축, 백제 문화에서 차지하는 익산문화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비밀 역사 코드 639', '흙으로 빛은 부처의 세계, 소조상', '흙으로 다진 부처의 집, 백제 사찰 건축을 엮는다' 세 개의 테마로 구성됐으며, 악귀상과 천부상 등 다양한 소조상, 벽체와 벽돌 등 건축부재, 정립사지 출토 소조상 등 100여 점의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전시 유물 중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악귀상은 제석사 폐기유적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유물로 백제 조각의 생동감과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왕도역사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석사 폐기유적은 백제 왕실사찰 제석사 북동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발굴조사를 통해 '관세음유형기' 기록에서 보이는 정관 13년(639년) 백제 왕실사찰 제석사가 화재를 입은 후 잔해물을 버린 폐기장소라는 것이 확인됐다.

/익산=정원원 기자

## 다양한 재즈 음악에 '흠뻑'

### 순창군 곳곳에서 내일 'SUNCHANG VIBE' 열려

오는 28일 순창군 관내 곳곳마다 재즈 선율이 퍼져나갈 예정이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BOVO문화관광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 SUNCHANG VIBE'가 순창군 일원에서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린다.

오후 12시 30분에 순창읍 창립문화마을에서 'IN:IN&HYUYA' 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1993 Tap Dance Band'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 창립문화마을에서 오전 11시부터 순성수 셰프의 요일부엌마을 스페셜 런치가 준비되어 허기진 방문객의 배를 채워줄 예정이다.

순창군청 앞마당에서는 오후 4시부터 지역민들의 찬사장과 더불어 'Dk Jazz Band'의 공연이 열린다. 그 뒤를 '최동일 Band'가 책임진다.

최근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순창 대표 카페인 '베르자르담'에서도 재즈선율을 느낄 수 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에 걸쳐 '김성수 모던 Jazz Trio With ROY'의 아름다운 재즈 선율과 향기로운 커피 한 잔으로, 주말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4팀의 재즈 밴드 공연이 예고된 공연장인 카페 '방랑싸롱'은 소공연장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관람객에게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나 지역주민부터 많은 재즈 팬들이 현장을 찾



을 전망이다. 공연은 오후 5시 'Damon B 개주 Band'의 첫 공연으로 'Maria Kim Trio', 'Bongo Frontier', 'DJ ZAKK' 등 총 4팀의 공연이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정형화된 공연장이 아닌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게 오가던 장소가 공연장으로 새롭게 변모되는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모든 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마한교육문화회관, 오늘 박준 시인 초청 강연 개최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오늘 저녁 6시30분 회관 체육관에서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박준 시인 초청 '시인이 사랑하는 시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젊은 시인 박준의 일과 예술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박준 시인과 신귀백 평론가와의 대담, 음악 공연, '시 한편의 필사'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어우러져 지역주민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준 시인은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 '산문집'이라고 불리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에서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11만부 이상 판매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또한 박 시인은 '문학계의 아이돌'로 불리우는 등 2030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생은 처음이라'와 '우아한 가' 등 각종 드라마와 방송, SNS에서도 그의 시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시인의 책 제목을 인용해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 시 읽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마한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lib.jbc.go.kr/mec>)를 통해 참가 신청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